

# 일제강점기 충북인의 만주이주와 생활

김주용\*

- 
1. 머리말
  2. 만주사변(9·18)과 만주국의 한인 이주정책
    - 1) 만주사변과 이주한인
    - 2) 만주국의 이주정책
  3. 이주와 정착
    - 1) 집단부락과 이주
    - 2) 정착과 생활
  4. 맺음말
- 

## 1. 머리말

2012년 9월 3일, 중국 연변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60주년 행사가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2012년은 정식으로 한인(조선인)이 중국 공민이 된 지 꼭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해방 직후 대부분의 한인은 중국 동북지방에 거주했다. 하지만 오늘날 조선족은 중국 전역에 거주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성장한 중국 경제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해방 후 중국 동북지방에 거주하고

---

\* 독립기념관 선임연구위원

있던 조선족은 그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만큼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만주는 그들에게 어떠한 곳이였을까.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은 이주 한인에게는 또 다른 삶의 터전이자 고난의 고향이기도 했다. 18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한인의 만주 이주는 1910년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많은 독립운동가들로부터 독립운동기지로 가장 주목받은 곳이 만주였던 점도 한몫했다. 만주는 그만큼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고 이미 한인사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전개하기에는 더할 나위가 없었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원형은 불과 100여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주지역으로의 한인 이주는 19세기 말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몇 가지 이주형태로 나타났다. 한인의 초기이주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1910년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을 계기로 정치적인 망명 등이 더해져서 그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만주지역 한인이주사는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구분된다. 바로 한인이주의 자율과 통제라는 경계선이 형성되는데 만주사변이 작용하였다. 만주사변 이전 한인 이주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외연에 더 큰 비중을 두었고 자유의지를 토대로 한 개인 이주가 대부분이었지만,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한인 이주의 패턴은 개인이주와 집단이주가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일제는 1932년 세워진 만주국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수급과 체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농촌 사회 재편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물이 안전농촌과 집단부락의 설치라고 할 수 있다. ‘만주사변’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일제의 침략 정책이 수면으로 등장한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이주한인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날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러시아와의 국경 무역 및 한국 상인들의 교역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중 도문시에는 충북과 관련된 독특한 마을이 민족적 정체성을 간직한 채 아직도 존재하고 있

다. 만주국 시기에 형성된 ‘집단부락’인데 흔히 ‘충북촌’이라 불리는 정암촌이 그곳이다. 이곳은 함경도 출신들이 많이 살았던 연변지역에서 많은 민속학자들이 연구주제로 삼을 만큼 독특한 마을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듯 만주국의 집단 이민 정책으로 오늘날에도 만주전역에 조선족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 이주한 충북인들의 이주와 정착 및 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금까지 충북인들의 만주 이주 및 정착에 대한 단독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정암촌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그것도 대부분 민속분야에 집중되어 있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1930년대 만주국 시기 충북인들의 고난의 이주와 정착기 및 생활상을 다루려고 한다. 이 글이 현재 중국 동북지역에 남아 있는 충북인들의 흔적을 추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2. ‘만주사변’(9·18)과 만주국의 한인 이주정책

### 1) ‘만주사변’과 이주한인

세계 대공황의 여파와 만주지역에서의 고전으로 일제는 ‘만주사변’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1931년 4월 성립된 浜口雄幸 내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滿蒙問題였다. 이 내각은 만몽에서 일본의 특수 권익이 축소된 원인으로 幣原喜重郎의 연약 외교를 지적하였다.<sup>2)</sup> 이에 따라 하마구찌 내각에서는 만몽의 특수권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무력 사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만주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의 발단인 유조구 사건을 일으키게 된 일단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임동철 외, 『중국 조선족의 문화와 청주아리랑』, 집문당, 2004.

2) 강동진, 『일본근대사』, 한길사, 1985, 362쪽.

‘만주사변’은 만주지역의 정치·경제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이주한인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권력과 그에 따른 통치세력권하에 놓이게 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새로 짠 구도 속에서 일제가 펼친 정책과 그 영향으로 이주한인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sup>3)</sup> 일제도 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제는 오족협화를 정신적인 구심점으로 내세워 국가 건립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피난 이주한인 문제의 정책적 해결을 시도하였다. 안전농촌의 설치문제가 본격화되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와 일본외무성, 관동군의 헤게모니 싸움이 표면화되었다. 예컨대, 관동군의 경우 이주한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안전농촌 설립 자체도 반대하였다. 이에 반해 조선총독부는 국내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민의 귀환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안전농촌의 설치로 정책의 가닥을 잡아나갔다.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다. 먼저 ‘만주사변’으로 인하여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이주한인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4)</sup>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奉天北大營 주둔군이 각지로 흩어졌고<sup>5)</sup> 이로 인해 이주한인 마을에도 그 영향이 나타났다. 즉 관동군에게 패한 중국군들은 한인마을에 들어가 약탈, 방화, 강간 등의

3) 표면적으로 구제사업을 내세웠던 것도 한인사회의 안정화라는 측면과 이를 통한 일본인 이민세력의 부식을 연동해서 고려했던 것이다. 특히 협화회를 통한 농촌행정지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淺田喬二·小林英夫,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 時潮社, 1986, 278~288쪽).

4) 손춘일, 『해방전 동북조선족 토지관계사 연구(하)』, 길림인민출판사, 2001, 296쪽.

5) 孫邦, 『9.18事變資料匯編』, 吉林文史出版社, 1991, 276~281쪽. ‘만주사변’ 당시 북대영 군사대 대장을 맡고 있었던 李樹桂는 일본군의 침입 상황과 중국군의 퇴각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18일 10시 20분 유조구 방면에서 큰 굉음이 발생하였으며 일본군이 바로 북대영을 공격하자 이에 북대영은 저항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동대영으로 퇴각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라고 하여 일본군에 의한 중국군의 일방적인 퇴각 사실을 알 수 있다.

만행을 자행하였다. ‘치안’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한인들은 수확기의 농작물을 그대로 둔 채 피난을 떠나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봉천, 무순, 본계, 해룡, 안동, 영구, 장춘, 하얼빈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1932년 1월 초에 이미 그 수가 19,300여 명에 이르렀다.<sup>6)</sup>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만주 각지의 피난 이주한인 문제는 일제로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만주사변’으로 발생한 많은 이주한인 피난민에 대하여 외무성과 합동으로 직접적인 구제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sup>7)</sup> 그 방침 아래 만주 지역에 5개의 안전농촌이 설치되었다. 영구, 삼원포, 하동, 수하, 철령이 차례로 설치되었으며, 한인들은 만주지역에서 재이주를 통하거나 한반도에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경우로 나뉘었다.

만주로의 이주 초기부터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독립군과 한인사회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물자보급과 인적지원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과열음도 발생하였지만, 그 유기적 관계는 지속되었다. 일제로서는 항일부대와 한인사회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만 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립군 세력의 약화와 한인사회의 통제를 꾀하고자 하였다.<sup>8)</sup> 이를 안전농촌의 설립 요건과 연결하면 좀 더 분명해진다. 안전농촌의 경우 토지선정요건으로 치안문제가 가장 크게 고려되었다. 안전농촌 선정요건은 첫째 日滿군경이 주둔하고 있고 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확실하며 경비 가능구역, 둘째 부근에 소작할 수 있고 경지 300정보 내지 400정

- 
- 6) 民族問題研究所 編,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 1, 韓國學術情報株式會社, 2000, 473쪽. 林元根은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 이후 만주지역 답사를 통해 이주한인의 실상과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을 알렸다. 1932년 말 그는 심양(봉천)의 피난 이주한인에 대하여 ‘5전짜리 인생’이라고 묘사하였다(林元根, 『滿洲國과 朝鮮人將來』, 『三千里』 5권 1호, 1933, 56쪽).
- 7)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398쪽. 만주사변 직후 일제는 여비와 주거비용 등을 합해 가구당 100원 정도의 구체비를 책정하였다(民族問題研究所 編,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 1, 473~475쪽).
- 8) 『滿蒙各地ニ於ケル鮮人ノ農業關係雜件』 6, 『羅子溝農村問題調查資料進達ノ件』, 1935. 3. 28. 普通제161호).

보를 가지고 있는 지점, 셋째 신탄 및 음료의 채취와 부락 구축에 필요한 재료 등 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갖춘 곳, 넷째 앞으로 황무지 개발의 거점 또는 인근에 마을 수용 수 이상의 귀농 또는 새로운 이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 다섯째 교통이 편리한 지점 등이었다.<sup>9)</sup>

일제가 안전농촌을 자작농장정계획과 연동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인에 대한 즉흥적인 ‘구제’가 아닌 이등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한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과 문화적 양태는 일제의 침략논리와 분리된 것은 아니었다. 바로 여기에 안전농촌의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만주국 성립 이후 일제의 안정적인 식민통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치안유지 및 농업이민의 실현이었다. 일본의 무장이민, 집단이민 등이 실현되면서 만주에는 새로운 형태의 촌락이 형성되었다. 기존 마을을 이주시켜 집단거주지를 형성한 것은 현지인들에 대한 강제성을 안전농촌이라는 집단 거주지에 잘못 투영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이는 안전농촌 설치 초기 원 거주 한족들의 집단적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심지어 공동우물에 분뇨를 투척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을 정도였다. 따라서 안전농촌은 이주한인에게도 안전하지 않았으며, 원 거주 한족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의 강제였다.<sup>10)</sup> 뿐만 아니라 만주국 성립 초기 국가의 건립 자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치안이라고 할 만큼 각지에서 치안부재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역으로 항일투쟁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만주국의 이주정책

만주국의 ‘이상정치’는 오족협화를 실현하는 데 있었다. 왕도정치는

9) 『滿蒙各地ニ於ケル鮮人ノ農業關係雜件』 6, 「三源浦農場設置方ノ件」(1935. 4. 16. 機密제198호).

10) 김주용, 「만주 ‘하동안전농촌’의 설치와 운영」, 『백산학보』, 84, 2009, 303쪽.

표방하면서 오족협화를 주장하는 만주국에서는 만주국의 황제도 일본 천황의 정신과 일체하다는 선전을 지속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었다.<sup>11)</sup> 인류의 평화와 복지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것은 바로 만주국의 왕도정치임을 ‘진정성’ 있게 강조하였다. 이를 실현할 조직체가 바로 협화회였다. 왕도정치와 협화회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sup>12)</sup> 이주 정책 역시 협화에 기초를 두었다. 선주 만주인과의 마찰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화의 실현이 필수적이었음을 강조했다.<sup>13)</sup>

한편 만주국이 농업국가를 표방했기 때문에 광대한 대지를 개간할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했다. 만주국 초기 이민의 주요 대상자는 일본인이었다. 하지만 일본 이민의 경우, 치안이 부재하며 이주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곳곳에서 현지인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자기 통제를 상실한 경우도 나타났다. 당시 일본인 이민은 초기 청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장이민도 진행되었다. 이른바 개척단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집단 이민의 단면을 사례를 통해 보겠다.

1938년도 영안현 사란진에 만몽개척청년단 의용대영안훈련소가 설치되었다. 1939년에는 난강, 유림, 호둔화림 및 밀점하 각 지구에 제8차 개척단의 입식이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산시·경박호에 청소년의용대 갑종훈련소 및 어업개척단을 설치하였다. 나아가 산시, 밀산에 철도자경단 훈련소가 설치되었다.<sup>14)</sup>

특히 영안현에는 만주국의 입장에서 국방산업에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농축산의 증식을 위해 도로, 통신을 정비하여 운수기관의 확충으로 물자수송 및 배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개척민의 입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39년 5개단 1,200호, 청소년 의용훈련소 3개소 900명을 인계하여, 1940년에는 석두전자, 남합밀영성자, 대평구, 삼도하자 합계 6개 집단 1,200호 및 소목단지구 외 7개소에 75호를 이주시켰

11) 『재만조선인통신』 15, 1쪽.

12) 『재만조선인통신』 21, 9쪽.

13) 『재만조선인통신』 21, 4쪽.

14) 黑龍江省檔案館 編, 『東北日本移民檔案』-黑龍江省 1, 136쪽.

다.15)

한편 만주국에서는 치안 불안요소를 극복하고 신진 청년들을 더 많이 이주시키기 위해 청소년의용대를 운영하였다. 영안현의 경우 1936년 청년의용대가 사란지에 개설되었으며<sup>16)</sup> 1936년 12월에 이르러 3,600명의 입식을 완료하였다. 기본훈련을 실시하였고 1939년 다시 갑중훈련소에서 훈련시켜 만주국의 ‘충실한’ 이식 침략자의 선봉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훈련소에는 크고 작은 분규가 발생하였다. 훈련생을 훈련소에 입소시켰지만 훈련생도 간의 다툼, 기존 주민과의 마찰, 간부 명령에 대한 불복종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에 대한 근본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한인의 집단 이주에 대한 필요성이 역설적으로 제기되기에 이른다. 다음은 영안 청년의용대의 훈련소 훈련상황을 정리하였다.

---

15) 黑龍江省檔案館 編, 위의 책, 140쪽. 일본인 개척단 현황을 정리하였다. 밀점추진 개척단의 본단 광견대는 2월 입식, 신안진 서쪽 약 8천미터 떨어진 대항지에 위치한 밀점하의 비옥한 평원을 차지하였다. 단원의 융화 상황 및 부민과의 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호둔향천 개척단 본단은 1939년 1월부터 3월까지 3차에 이르는 44명의 광견대가 입식되었다. 입식지구는 영안현성에서 서쪽 약 27km 지점에 위치하며, 합하의 유역에 있는 가경 면적은 4,000여 陌, 방목지 1,700 陌이다. 광견대가 건설 공사를 독려하면서 1939년 수전 15 맥, 전 100맥을 경작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자급자족을 기할 수 있었다. 난강 개척단 입식 지구는 현성 서남쪽 약 10km 지점 와룡경찰서 관내 이도구를 중심으로 하여 圖佳선(도문-가목사)에 잇닿은 지역을 차지하며 약 5,300맥으로, 1939년 단 자체의 자급자족을 계획하여 垆田150맥, 수전 50맥을 경작하였다. 화림 개척단의 본단 입식지구는 목단강의 동광화림역의 동쪽 약 8천미터 떨어진 오하림경찰서 관내 북전자에 위치하며 총 면적 5,400맥 내 3천맥의 가경지를 가지고 있으며, 수전 가경면적이 많아 토지가 비옥하다. 유럽기옥 개척단의 본단은 현성 동남쪽 15km 알사란하 유역에 위치하며 특히 조림 계획으로 4,600맥의 중묘원을 건설 경영하는 것 이외 1,500평의 과수원도 만들었으며 축산도 계획하였다.

16) 黑龍江省檔案館 編, 『東北日本移民檔案』-黑龍江省 1, 143쪽.

<표 1> 영안훈련소의 훈련상황

대별	인원	이행월일	이행선	비고
1	295	1939년 3월 14	교하현 화수촌	
2	322	4.7	남산시	
3	457	4.30	흑하성	
4	529	5.5	돈화현 대석두	
5	337	4.18	동녕현 삼타구	
6	394	6.4	돈화현 대석두	
7	275	6.4	경박호	
8	241	4.29	빈강성 하현 남평양산	
10	266	3.13	산시 길산(철도)	
11	254	4.24	돈화현 대석두	
12	297	4.24	삼강성 발리현 청산	
13	375	4.29	홍안성 삼하지방	

\* 黑龍江省檔案館 編, 『東北日本移民檔案』-黑龍江省 1, 145쪽. [영안훈련소의 갑종훈련소 이행상황]

이와 연결하여 만주국에서는 영안현 경박호 부근에 경박학원이라는 농업기관을 설치하였다. 경박학원은 만주 농업의 지도원 양성을 목적으로 1932년 10월 만주국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1933년 동경 국사관의 山田梯一을 총무로 영안현 경박호반에 실습농원을 경영하였다. 그 해 9월 2일 학생 190명을 처음으로 입학시켜 학교의 기반을 갖추었다. 하지만 1934년 5월 17일 야마다와 학생 수비대 등 일본군이 현지 저항세력과 충돌하면서 구성원이 희생이 뒤따랐다. 뿐만 아니라 자금난까지 겹쳐 분산경영되기에 이르렀다. 1936년 4월부터 해랍이 농사시험장에 10명, 공주령농사시험장에 6명, 밀산현 성자하 개척단에 50명, 그 밖에 20명 합계 86명을 분산하였다.<sup>17)</sup>

이곳 영안현은 목단강 지구에 속하면서 연변지역과도 가깝기 때문

17) 영안현 남쪽 경박호에는 어업개척단을 설치하였다. 1939년 1939년 10월 단장 紫田雄藏 이하 10명의 선견대로서 반농반어의 특수개척단이라 할 수 있다.

에 한인이민 역시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일본인 이민뿐만 아니라 한인 이주 역시 집단 집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한인의 영안현 이주는 1939년 해림지구에 3개 집단 324호, 간방 외 14개소 부락에 집합개척민 37호, 밀산현에서 원주민 41호를 해림홍전자 제3부락으로 이주시켰다. 이들 이주지역은 대부분 미경지로 光遺隊로 인해 경작면적이 적었지만 강제 이주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되어 오히려 관내 북전자 원주민 140호 720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집합이민 형식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경우 만주국 입장에서는 그들을 ‘유랑성’ 이민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선거주 이주자의 재이주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간과한 인식이었다. 1938년 7월 이주 한인에 대한 취체 요강의 변경에 따라 개척농민은 鮮拓이 직접 이를 취급하여 집합 개척농민은 선척의 자금을 받아 금융회에서 이를 알선하였다. 1939년 영안현 부근에 이주한 한인들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한인 집단 개척민

입식부락	호수	인원	출신도별	입식년월일
해림강 제1부락	99	524	경북	1939. 4. 13
제2부락	130	746	경북(55), (75)	4.16
임가방신	94	529	경북(70), 경남(24)	4.13
	323	1,799		

한인 집합 개척민

입식부락	호수	인원	출신도별	입식년월일	비고
삼가자	17	102	전라남도	1939. 4. 5	
납고남구	17	100	전라남도	1939. 4. 2	
백묘자	24	110	전라남도	1939. 4. 12	
포자오남구	10	52	경상남도	1939. 4. 20	목단강 금융회

영둔	15	71	경상남도	1939. 4. 20	
사호남구	16	74	경상남도	1939. 4. 20	
강두남구	10	50	경상남도	1939. 4. 20	
대림산자	50	258	경상남도	1939. 4. 20	
석하동구	33	175	전라남도	위와 같음	
문명둔	30	240	경상남도	4. 6	
대령	21	91	전라남도	4. 8	신안진 금융회
석하대둔	24	137	경상남도	4. 9	
누방	49	244	경상남도	4. 10	영안 금융회
칠간방	49	265	경상남도	위와 같음	

\* 黑龍江省檔案館 編, 『東北日本移民檔案』-黑龍江省 1, 145쪽.

이상 14개 지구의 경지 면적은 3천 상을 넘었지만 각 지방은 수전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주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였다. 특히 영안지역 금융회가 활성화되지 않아 가옥구축 및 위생, 교육 등 전반적인 이주사회의 각 요소가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sup>18)</sup> 여기에서도 자작농 창정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주한인 농민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창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부 지주의 무한한 착취로부터<sup>19)</sup> 벗어나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이 역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영안현 남부지역에 대한 만척의 토지매수가 일부 진행되고 있었을 뿐이다.

### 3. 이주와 정착

#### 1) 집단부락과 이주

한인들의 집단 이주 형태는 다양하였다. 먼저 조선총독부와 만척은

18) 이주민에 대한 예측 및 실행에 대하여 만선척식주식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향후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19) 黑龍江省檔案館 編, 『東北日本移民檔案』-黑龍江省 권 2, 59쪽.

모집의 편의를 위해 지역적 편제를 통하여 이주를 시행하였다. 현재 간도지역의 전북툰, 정읍툰, 충북촌 등의 지명이 남아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둘째, 이주 당시 선전과 이주 완료 후 정책 주체의 태도는 상이했다. 즉 집단으로 이주된 한인들은 기존 이주한 한인과 달리 새로운 문화충격을 받으면서 감옥과도 같은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였다. 1935년 이후 남하마탕과 대항구 등에 집단 이주한 한인들은 국내에서 처음 선전한 만선척식주식회사의 달콤한 유혹이 아닌 현실의 고단함을 끌어안고 살아갔다. 셋째, 자작농 창정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것이다. 한인들의 땅에 대한 집착을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집단으로 이주시키면서 ‘막연한’ 희망을 심어주었는데 그것이 자작농 창정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척에 고용된 소작농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을 뿐이지 결코 자작농으로 자리 잡은 경우는 흔치 않았다.

만선척식주식회사에서 주관했던 충북인들의 만주이주는 어떠했는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충북지역의 사람들도 조선총독부에서 만주로의 이주시 모든 비용은 만선척식주식회사에서 부담한다고 선전하는 것을 믿고 집단 이주에 참여했다. 충청북도의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만주에 도착한 상황을 『재만조선인통신』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선척식의 제5차 간도이민 충청북도 선발 선농 185호, 804명은 동사 참사 김동진씨의 인솔 아래 지난 21일 오전 6시 30분 도문역에 도착해야 하는 임시열차로 도문역에 도착하였다. 역두에는 고옥영사분관 주임, 김 조선인민회장, 홍 간도이주조선인보도소 주사, 기타 각 기관대표자 등이 출영하여 입만제1보의 개척자를 성심으로써 환영하였다. 이외 간곡한 환영을 받은 이민은 제반 통관 수속을 마치고 동 오전 9시 임시열차로서 전기 관민 다수의 건승으로 도문 가목사선 대항구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금후 이민으로서 왕청현 아래 입식되는 것은 제5차 이민의 최초인데 동열차에는 특히 충청북도 지방 교화 주사 민영석, 총독부 외사과 중서진, 충북 음성군

속 金永基<sup>20)</sup>, 동 충주군속 이숙하<sup>21)</sup> 제씨가 수송상황 및 입식지 시찰을 위하여 동승하고 도문에서도 용정의 삼야조선총독부 파견원, 간도이주조선인보도소 김 서기 등이 이 이민을 안내하여 편의를 도모하려고 현지로 향하였다.<sup>22)</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충북인들의 만주이주는 아주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이루어진 느낌을 준다. 재만조선인통신이 바로 만주국의 이민정책 및 협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흥아협회의 기관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논조가 강하게 투영되었다. 특히 만선척식회사의 ‘친근한’ 한인 이주민 모시기는 국내와 국외가 상이했다.

최후로 특히 첨가하면 조선인이민 입식의 전도에 관한 것인데 회사는 관계 각 방면과 긴밀한 연락을 하여 미리 소요의 사항을 이주지원자에게 알게 하도록 처치를 취함과 동시에 입식 시기가 되면 선만국경의 요추지 및 이주지에 전도자를 배치할 주도용의하에 소홀함이 없음을 기하고 있으나 본년도는 회사 창립된 지 아직 일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입식은 3월 하순 적어도 4월 초순까지는 마치지 않으면 안되는 관계상 준비의 완료와 바로 예정 수에 달하는 이주자를 보게 됨에 있어 현재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관민 각위는 특히 본년도에는 이 점을 양해하여서 원조를 하여 주기를 간망하는 바이다.<sup>23)</sup>

1937년 중일전쟁기 한인에 대한 집단부락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만척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초기 이주한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회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 느꼈던 농민들의 두려움은 낫설은 땅에서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

20) 1935년 충청북도 괴산군의 촉탁으로 재직하였다.

21) 1934년까지는 원주군 관등 9급에 속했다.

22) 『재만조선인통신』 25, 23쪽.

23) 『재만조선인통신』 21, 2쪽.

수십명의 장정들이 거뭇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결코 추위 때문만은 아니다. 누런 군복을 입고 하얀 실장갑을 낀 일본군의 서리발치는 총신이 화약냄새를 피우며 가슴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사면에 경기관총까지 걸어놓았다.<sup>24)</sup>

청주역을 출발해서 도문역을 거쳐 왕청에 도착한 후 벌어진 일이었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조선 내에서의 고단했던 삶을 청산하고자 이민 물결을 몸을 던진 것이다. 정암촌에 이주했던 민홍기(이주 당시 15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는 청주군 내수리에서 살았어요. 식솔이 일곱이었는데 조부와 동생이 사망하고 중국으로 들어올 때에는 조모, 아버지, 어머니, 나와 여동생까지 모두 다섯명이었지요. 홍산이라는 일본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보증을 서고 외삼촌이 그 사람에게서 대부금을 냈어요. 외삼촌이 대부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우리는 집, 땅을 전부 몰수당했지요. 리재성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결방살이를 하다가 이민 모집을 보고 떠났지요. 내수리에서 조치원에 이르러 경부선을 탔어요.<sup>25)</sup>

이들은 온성군 남양에 이르러 두 갈래로 갈라졌다. 180호 가운데 100호는 왕청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정암촌에 정착하였다.<sup>26)</sup> 많은 이들은 만주의 추위를 견디지 못했다.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주한 이들은 1938년에 토지를 분배받고 농사를 지었다. 그 전에 가옥을 마련하였으며, 마을 둘레에는 커다란 토성을 쌓았다. 만척에서는 토성을 쌓는 이유를 ‘토비’들로부터 안전하게 마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정암촌에 이주한 한인들은 거대한 감옥에서 일제의 감시를 받게 된 것이다.<sup>27)</sup>

---

24) 리혜선, 『두만강변의 충북마을-정암촌 이주사』, 2009, 민족출판사, 1쪽.

25) 리혜선, 위의 책, 11쪽.

26) 리혜선, 위의 책, 18쪽.

27) 리혜선, 위의 책, 21~22쪽.

이처럼 많은 충북인들은 지독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이주에 동참했다. 충북 청원 출신의 조용구<sup>28)</sup> 일가 역시 빚더미로 생계가 어려운 지경이었다.<sup>29)</sup> 조용구의 부친 조동식은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피체되어 2년 정도 옥고를 치렀다. 그는 창씨개명으로 한반도가 들끓고 있을 때 손자 조남기에게 “성을 고친 것은 글자를 바꾸어 놓았을 따름이다. 너는 어디까지나 풍양 조씨 가문의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비록 일본사람에게 강점되었지만, 우리 민족은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다”<sup>30)</sup>라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조남기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하지만 집안 형편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다. 조동식은 자신의 아들에게 만주로 갈 것을 권유했으며, 1940년 초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들어간 후 영길현에 정착하였다. 이들이 정착한 것은 영길현 불당촌이었다. 조동식은 이주 후에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이도 70세가 다 되었으며 기력이 쇠잔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주생활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는 조용구에게 고향에 돌아갈 것을 제의했지만 결국 자신만 고향으로 돌아갔다.<sup>31)</sup> 이후 조용구 일가는 불당촌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이주생활을 이어갔다.

그들이 이주한 영길현은 만주국 성립 이전 길림성의 중심지역이었다. 1940년 초에는 영길현에서 중요한 행사가 거행되었다. 바로 개척 훈련소가 낙성되었던 것이다. 낙성식은 선척 참사 임한용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만주국이 그 동안 줄곧 강조했던 왕도낙토의 건설이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는 데 있다고 축사로 나온 인사들은 낙성식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그 가운데는 한인의 만주이민을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윤상필도 있었다.<sup>32)</sup>

28) 조용구의 아들 조남기는 중국의 조선족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군인이자 정치가였다(김양 외, 『조선족영재록』, 참조).

29)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학교력사연구회 편, 『빛뿌리는 발자취』, 연변인민출판사, 2006, 171쪽.

30)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학교력사연구회 편, 위의 책, 170쪽.

31) 위의 책, 172쪽.

뿐만 아니라 만주국의 자작농 창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었다는 의견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인들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공진항은 그의 자서전 『이상향을 찾아서』에서 자신의 만주진출과 농장 운영 및 이주 한인들의 자작농이 실현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이에 살길을 찾아서 연구해 내놓은 방법은 자유식 자작농 창정이라는 제도였다. 이 제도에 의하면 농민은 누구든지 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나 토지에 대한 지가를 지불하면 그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마침 안가농장은 이 해에 대풍을 이루었는데 추수기에 이 제도를 발표한 결과 농민 총수의 삼분의 일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는 기적적인 현상을 나타냈다. 이 제도는 아직까지 있어 온 균등식 연부상환제에 비하면 혁신적인 방법으로 만몽회사가 처음으로 창안한 전무후무한 이례적인 시도였다.<sup>32)</sup>

충북 청주 출신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33년부터 만몽일보 기자로 활동한 신영우는 1937년 만주국의 한인 정책이 본래도에 올랐음을 설파하였으며, 향후 한인 이민은 어느 정도 통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sup>34)</sup> 만주사변 이후 이주 한인들의 생활이 ‘명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만주국 민정부 척식사 제2과장이었던 윤상필도 이와 대동소이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1937년 4월 장춘 자택에서 가진 한 인터뷰에서 “조선이민을 통제하는 것은 조선농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요.”라고 했다. 국가가 직접 통제해야만 만족할 만한 이주와 생활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간도성 성장이었던 이범익<sup>35)</sup>이 1940년 초에 옥천군,

32) 홍양명, 「조선농민과 만주국 개척」, 『삼천리』 12권 3호, 218~225쪽.

33) 공진항, 『이상향을 찾아서』, 탁암공진항희수기념사업회, 1970, 66~67쪽.

34) 『재만조선인통신』 26, 2쪽.

35) 이범익은 1883년 충북 단양에서 태어났다. 중추원 참의와 도지사를 거쳐 만주국 간도성 성장을 역임했다. 최남선, 박석운 등과 함께 관동군

보은군, 청주군 군수를 동행하면서 정암촌을 방문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주국에서 이주한인은 생산력 창출의 중요한 자원이었다.<sup>36)</sup>

## 2) 정착과 생활

새로운 곳에 정착한 이주 한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어찌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몰랐다. 1992년 정암촌에 거주하는 나귀순(충북 보은)의 구술은 당시 정암촌의 상황이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금방 얼음길을 끝내고 머리를 드니 바로 길목에 승냥이가 앞발을 짚고 목을 곧게 펴고 바라보더라고요. 소름이 짝 끼쳤지만 돌아서서 달리면 안되지요. 죽으나 사나 맞아서 걸어 가야 하거든요. 돌을 두 손에 거머쥐고 계속 걸어가는 데 5미터 가까이 승냥이가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sup>37)</sup>

도처에 짐승들이 날뛰었으며, 추위로 농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다행히 정암촌에 이주한 첫해 소출이 괜찮은 편이었다. 많은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되는 흉수 등으로 생산은 넉넉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3년이 지나 만척회사에서 빚을 받기 시작했다.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콩 20가마니를 바쳐야 했다. 이것을 공출이라고 했다. 당시의 정암촌 공출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sup>38)</sup>

그때는 공출이 심해서 식량은 있는대로 다 바쳐야 했지요. 굶은 지팽이로 땅과 천장을 쿵쿵 울려보고는 식량을 들추어

---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민족문제연구소, 『친일 인명사전』 2, 869쪽)

36) 리혜선, 『두만강변의 충북마을-정암촌 이주사』, 32쪽.

37) 리혜선, 위의 책, 40쪽.

38) 리혜선, 위의 책, 41쪽.

갔어요. 식량을 다 빼앗기고 우리는 감자, 풀, 연뿌리 등을 먹었어요. 감자가 떨어지면, 연뿌리, 질경이를 먹고 살았지요. 그것만 먹으니까 부종이 나 사람이 텅텅 붓는데 그걸 모르고 그저 좋은 풀이어서 살찌는 줄로 알았어요. 해방 나던 해에는 일본 사람들이 몰러가면서 보리밭에 불을 질러 우린 거의 굶어죽을 뻔했어요.<sup>39)</sup>

이러한 상황은 만주의 도처에서 발생하였다. 북간도 지역의 집단부락이었던 남하마탕과 대황구의 상황을 살펴보겠다. 남하마탕에는 200세대 1,000여 명이 집단이주하였으며, 대황구에는 185세대 793명이 정착하였다.<sup>40)</sup> 당시 집단이주에 관련된 모든 사무는 백초구 일본영사분관에서 담당하였다.

1935년 음력 3월에 정두용은 일제의 선전에 의해 마을 사람들이 “신세 한번 고쳐보기 위해” 하마탕에 이주하였다고 한다.<sup>41)</sup> 강원도 철원군 외학리가 고향인 정두용은 조선총독부에서 만주로의 이주시 모든 비용은 만선척식주식회사에서 부담한다고 선전하는 것을 믿고 집단 이주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쓸쓸하고 한적하기 그지없는 하마탕 산골에 10리 길가도 살림집 몇채 없는 인구가 희소한 골짜기에 ..... 이주민 대오가 산굽이에 이르자 만척에서 파견된 담당자가 대오를 멈추어 세우고 큰 돌 위에서 훈시하였다. “이제 곧 하마탕에 도착한다. 하마탕에 도착한 후 모두 통일지회에 복종해야 하며 마음대로 외출하지 못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줄 알라” 고향에서나 기차 칸에서 또 역전에서 듣던 말소리와는 사뭇고 독이 찬 명령식 오조는 사람들에게 위기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다.<sup>42)</sup>

---

39) 리혜선, 위의 책, 42쪽.

40) 滿鮮拓植株式會社, 『間島省汪清縣鮮農移民入植實施經過狀況』(1937), 27쪽.

41) 최석준, 『하마탕촌 발자취』, 하마탕촌민위원회, 2007, 3쪽.

국내에서는 ‘달콤한 유혹’ 즉 자작농창정 등으로 이주를 독려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적 이주와 다름없음을 위의 글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집단 이민 1세대의 증언을 통해 그들의 이주 시기 및 삶의 실태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집단 이민 1세대

	이름	생년월일	본적지	마을 이름	이주시기	주요 내용
1	오준섭	1921.12.27	함남 북청 성대 창성	남하마탕	1937년경	항일연군과 자위 단과의 총격전 구술
2	이도화	1921.10.10	강원도	남하마탕	1937년	결혼 후 이주, 토 성쌍기에 동원됨
3	김순녀	1920	경남 함양 마천	연길현 복리분	1937년 4월	남편 양무출과 이 주, 이주 초기 땅 막속에서 거주
4	김양금	1916.1.8	전북 임실 강길	안도 양강촌 전북분	1944년 8월	남편 남송조와 이 주. 보충 이민형태
5	박연주	1933.7.11	전북 임실	화룡현 광평분	1939년 3월	이주 후 남동생 두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
6	조점순	1931.1.7	전북 고창 아산	안도현 양강촌 강남분	1938년 2월	
7	최봉식	1921	경남 함양 마천	복리분	1938년 3월	절구통, 징병특 별 훈련 참가
8	정다남	1929. 6	전북 남원	안도현 송강촌 북도분	1938년	떡시루, 땅굴과 토성

42) 최석준, 위의 책, 7~8쪽.

9	김인순	1928	경기 양평	연길현 명월구 이청북툰	1940년	화로와 단지(향 아리)
10	서차관	1923	경북 상주	왕청현 춘화향 태양툰	1937년 3월	
11	김인생	1922	경북 김천	왕청현 춘하향 향수촌	1937년 3월	일본인 부대 보급 대 역할(강제 부역)
12	황정례	1932	충남 공주	연길현 명월구 영생동	1943년 3월	
13	이영자	1923	경남 밀양	연길현 봉녕촌 북만툰	1938년	만적의 수탈
14	조진희	1931	강원	안도현 양강촌 진북툰	1938년 봄	학교 미취학
15	박차순	1927	전북 정읍	안도현 송강촌 정읍툰	1944년 4월	1938년 부모 선 이주
16	조원선	1931	충북 음성	왕청현 화가영툰	1938년 2월	
17	김동수	1930	충북 청주	안도현 봉녕촌	1939년	전염병 창궐

\* 이광평, 『집단이민사진』, 2003(미발간).

위의 총 17명의 구술자 가운데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사람들의 비율은 약 68%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간도지역의 선이주 한인들이 대부분 함경도 지역 출신이었지만 집단부락을 통해 이주한 한인들은 삼남지방이 대부분이었음을 감안할 때 일제가 수전농지 확충이 주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연령은 1916년부터 1933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주 1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주 당시 고향에서 쓰던 생활 용기를 휴대하였다. 이렇게 이주한 한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생활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하마탕에 이주한 한인들은 먼저 토성쌓기에 동원되었다. 집단부락은 십자로 길을 놓고 동서남북에 각각 50세대씩 집터를 다지게 하였다. 하마탕 이주 1세대인 이도화(1921년생)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이주하자마자 토성쌓기와 길담이에 강제 동원되었으며, 토성을 쌓을 때 머리에 돌 등을 이고 다녔기 때문에 빗질을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sup>43)</sup> 이처럼 집단 거주한 한인들은 대부분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그들에게 안정된 거주는 초기에는 불가능하였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 초기 집 형태는 땅굴 형태의 임시가옥이었다.<sup>44)</sup> 이곳에서 거주하는 이주민에게 지급된 양식은 매우 열악하였다. 배급된 식량은 대부분 좁쌀이었으며 부식으로 소금, 채소 등이 지급되었다.<sup>45)</sup>

마을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서 외부와의 경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일제는 집단부락민들을 보감제와 호적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하였으며, 신분증·여행증을 발급하여 통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무장기구는 갈수록 증설되었고, 집단부락 간 경비도로를 신설하는가 하면 경비전화를 개통하기도 했다.

마을에서는 부락행정단과 자위단으로 나뉘어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며, 부락장 밑에 부락부장과 호장을 두었다. 하마탕의 경우 초기 부락장은 백인섭이 담당하였으며, 자위단 단장은 이원순이었다. 이주민들은 이들의 지시에 저항없이 따라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협화회 분회, 백초구영사분관 헌병대 등이 이주 한인들을 감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37년에는 하마탕에 진하국민우급학교가 설립되었다. 학제는 4년제이며 학생수는 40명 정도였다.<sup>46)</sup>

1930년대 집단 이주한 마을에는 한인교육기관이 거의 설치되지 않

43) 이광평, 앞의 책, 7쪽.

44) 최석준, 앞의 책, 13쪽.

45) 滿鮮拓植株式會社, 『間島省汪清縣鮮農移民入植實施經過狀況』, 29쪽. 안도현 태평툰에 이주한 서완석의 증언에 따르면 좁쌀 가운데 썩은 것도 섞여 있었다고 한다.

46) 최석준, 앞의 책, 17쪽.

았다.<sup>47)</sup> 하지만 일제의 이른바 내선일체교육이 실시되면서 보통학교를 비롯하여 우급학교들이 설립되었다.<sup>48)</sup> 이는 연변을 비롯해서 새롭게 마을 형성된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1939년 당시 만주국에서는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를 내선일체의 구현과 협화의 구현으로 연동해서 설명하려고 했다. 대표적으로 『재만조선인통신』의 칼럼리스트였던 김영삼은 국민정신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만주국의 교육은 오족협화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제 우리가 만주에서의 내선일체주의를 강조하는 소이는 재만조선동포로 하여금 먼저 그 정신의 작흥과 사상의 귀일을 같이 하여 완전한 국민의식으로서 오족협화의 이상을 실현함에 참획하게 하는 것이며, 만주국의 건국이 있기 전에 일본제국은 있었으며, 오족협화의 이상이 있기 전에 내선일체의 정신적 혈맹은 있는 것이며, 전자를 잊어버리고 후자를 알 수

---

47) 정암촌에는 해방 전 정식 학교가 없었으며, 유재기라는 사람이 차린 서당이 전부였다(리혜선, 앞의 책 56쪽).

48) 안전농촌 가운데 하나인 하동안전농촌의 교육기관 역시 이와 대동소이하다. 하동에는 일제가 농장을 설치하기 이전인 1927년에 한인들이 직접 운영한 학교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1933년 하동농장이 설치된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 신청으로 일본영사관의 허가를 거쳐 ‘河東普通’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6년제를 실시하였으며 각 계에 설치한 사립학교에서 3년을 마치고 4학년부터 보통학교에서 교수하였다. 1937년 치외법권이 철폐되면서 만주국의 민족교육도 바뀌게 되었으며, 학교 명칭도 珠河縣 公立國民優級학교로 개칭되었다. 또한 이때부터 만주국의 우민화 교육이 본격화되었다(한득수, 앞의 책, 105쪽). 하동마을 출신인 중국 연변대 부총장을 지냈던 정판룡은 “학교에 한때는 그래도 얼마간의 조선어 시간이 있었으나 소위 만주국의 신학제가 실시되면서 조선어는 취소되고 일본어와 중국어만 배워주었다. 비록 우리는 중국땅에 와 살고 있는 조선사람이지만 여전히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며 만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국어라 하여 첫 자리에 놓았고, 중국어는 만어라 하여 다음 자리에 놓았다. 그러니 우리는 일본 신민이며 만주국민인 이중성을 띤 인간이지만 오직 조선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침마다 학생들은 학교운동장에 모여 ‘황궁요배’와 ‘제궁요배’를 하였는데...”라고 했다(정판룡, 『고향 떠나 50년』, 민족출판사, 2000, 22~23쪽).

없으며, 전자를 내버리고 후자만을 취할 수 없음을 단순히 그 정신이 이상주의에 치우쳐 불길한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내선일체는 조선인의 풍속과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 및 그 고유문화에 단점이 있을 것이면 이 또한 버리기를 아까워해서는 안된다. 일본도 고유문화에 단점이 있으면 버려야 한다. 내선 양민족의 우수한 그것을 결합하여 한 새로운 문화를 건설함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정신적 결합이야말로 내선 양민족의 공존공영을 초래할 수 있는 동시에 이 정신적 결합은 단지 조선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주, 중국 제 외국일지라도 불가결의 사세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재만조선인은 재래로부터 오는 특수한 사정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만주국에 대하여 그 본래의 국민정신의 이완을 가지며 이상주의에 흐르기 쉬운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재만조선인으로 하여금 본래부터 조선인에게 제공된 근본정신을 작흥케 함은 방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sup>49)</sup>

이러한 만주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인사회의 저항도 있었지만 강제성을 띠고 진행된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해방 전 연길과 훈춘에서 학교를 다녔던 김재율(1927년생)은 “1939년도인가 이때 만주국에서 뭘했는가 말이야, 일본어를 국어로 배우고 조선어를 배우지 말아라. 이러한 본령을 내렸지. 우리가 소학교 당시에는 6학년까지 조선어를 배웠는데”라고 하면서 ‘조선어 운동’을 민족운동이라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했다고 했다.<sup>50)</sup> 다시 말해 언어와 민족운동의 상관성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만주국의 오족협화 및 내선일체의 강력한 교육정책으로 ‘집단부락’의 교육은 점차 우민화되어 갔다.<sup>51)</sup> 그렇다면 정암촌에 거주한 충북인들의 생활

49) 『재만조선인통신』 60호, 10~11쪽.

50) 김도형 엮음, 『식민지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 선인, 2009, 232쪽.

51) 정암촌의 경우 정식 학교가 없었으며, 유재기라는 인물이 세운 서당이 유일한 배움터였다(리혜선, 앞의 책, 56~59쪽).

은 어떠했는가.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정암촌 이주민 현황

	이름	연령	본적지	마을 이름	이주시기	주요 내용
1	민홍기	78	청주군	정암촌	1938	
2	서강숙	71	청주군	정암촌	1938	채무 해결 및 부친 독립운동 영향
3	심명옥	64	옥천군 동이면	정암촌	1938	경제적 문제. 이주 후 부모 사망
4	리용안	66	청주군 강외면	정암촌	1938	고을의 소작료 및 채무 해결. 9세 때 이주. 공출의 폐해 직접 목도
5	최경백	65	보은군 보은면	정암촌	1938	가족사(친 누이 사망)
6	이기친	71	청원군	정암촌	1938	
7	이병옥	64	옥천군	정암촌	1938	1992년 취재. 채무 해결
8	박찬용	70	옥천군 안남면	정암촌	1939	채무 해결
9	성복숙	72	청주군 북이면	정암촌	1939	
10	류창호	68	청주군 북이면	정암촌	1939	유학자 부친(유재기)과 함께 만주 동행

\* 리혜선, 앞의 책, 7~69쪽.

한편 집단이주의 모든 일정을 책임진 만척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은

마을 책임자 이외에는 상당히 적대적이었다.<sup>52)</sup> 정암촌의 만척 책임자는 석길호였다. 경상도 출신으로 만척과 이주자들의 중간자 역할을 담당했지만 착복이 예사였다. 이주민들의 항의로 결국 만척에서도 책임자를 교체할 정도였다.<sup>53)</sup> 다른 지방의 예를 보면 1944년 안도현 양강촌에 집단 이주한 민병규(1923년 충남 공주 출생)는 만척에서 이주민에게 농기구를 비싼 값으로 대여하였으며, 특히 오래된 농기를 새것으로 둔갑시켜 대여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고 한다.<sup>54)</sup>

이처럼 이주 한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주요 목적이라고 선전한 집단 이민은 오히려 한인들을 이용하여 경제적 착취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기초가 되었다. 요컨대 집단이민, 집단부락의 설치는 일제가 그렇게 주창했던 한인의 경제적 신장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집단부락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탈’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맺음말

만주로 가면 땅에는 쌀이 많고 물에는 물고기가 씨글씨글 거리고 산에는 짐승들이 씨글씨글하다. 조이삭은 허리띠만큼 길고 감자는 물동이만큼 크고 콩알은 열콩알만큼 크고 옥수수 이삭은 팔뚝사리만 하고 호박은 쪽지게에 지도록 크고 콩대로 지팽이를 만들어 짚고 다닌다. 3년간 자기가 농사지어 먹고 3년 후부터 공출하는데 그 3년이면 회사 빛 갚고도 땅 사고 지주가 된다. 여기는 땅이 적으니 땅 많은 만주 가서 네 농사지어 네 먹어라.<sup>55)</sup>

52) 김주용, 앞의 글(2009), 302쪽.

53) 리혜선, 앞의 책, 41쪽.

54) 이광평, 앞의 책, 34쪽(2002년 5월 11일 인터뷰).

55) 리혜선, 앞의 책, 13쪽.

중일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한인을 집단 이주시키기 위해 퍼트린 선전문구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200여만 명이다. 해방 직후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22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귀환하고 나머지는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조선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 만주로 간 충북인들의 정착과 생활을 다루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주국은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성립된 기형적 국가이다. 만주국은 성립부터 왕도정치를 표방하였으며, 협화회를 통해 이것을 실현하고자 했다. 협화회는 다민족 국가인 만주국이 왕도낙토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동하여 ‘대국의 화평’을 이루어 인류의 복지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다. 한인의 집단 이민 정책도 협화의 기초 아래 진행되었다. 그 선행 작업으로 ‘만주사변’(9·18사변) 직후 만주에 설치된 안전농촌을 들 수 있다. 안전농촌은 피난민을 안전하게 수용하여 한인사회를 안정시키고 수전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안전농촌에 수용된 한인 농민들은 만주국 이민정책의 수혜자(?)라는 선전과는 달리 고달픈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른 점도 있지만, 영구 안전농촌의 경우 초기 생활은 생명을 연장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둘째, 만주국은 드넓은 만주벌을 개간하기 위하여 일본인 이민 100만 호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결국 당초 계획은 실패하였다. 그 대안으로 한반도 남부의 수전농법을 익숙하게 구사하는 한인들은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계획, 시행하였다. 만주국은 만척을 내세워 한인들을 대거 만주로 집단 이주시켰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지만, 만주국은 왕도낙토를 선전구호로 내세우면서 집단이민을 독려했다. 충청북도 사람들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북간도 및 길림성 각 지방에 충북촌이 형성되고 지금도 정안촌처럼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만주국에서는 한인의 집단이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담보로 한 강제성이 투영된 정책이었다.

셋째, 만주에 정착한 이주한인들은 가장 먼저 거처할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처음에는 대부분 토굴 속에서 생활한 후 점차 가옥을 마련하게 되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마을을 형성한 이주한인들에게는 들짐승뿐만 아니라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공출이라는 새로운 ‘괴물’이 한인들의 삶을 위협하였다. 만주국의 통제 아래 진행되었던 한인 이주는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는데, 한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가주도 아래에서 이주한인들은 만주국이 선전한 ‘천혜의 농토’에서 만척에 고용된 소작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논문접수: 2013. 5. 2, 심사시작: 2013. 5. 10, 심사완료: 2013. 5. 22.]

주제어 : 만주국, 집단이민, 정암촌, 안전농촌, 수전농법

<ABSTRACT>

## Chuncheongbuk-do people's Manchuria emigration and their life in Japanese colonial era

Kim, Joo-yong

This writing covers the Chuncheongbuk-do emigrants among ChineseKoreans who had lived currently in China.

First, Manchukuo is deformity nation which was established as the part of Japanese continental policy. Manchukuo claimed to support monarchy since its establishment , and they tried to realize it through a consonance committee. The consonance committee's purpose of establishment was that they will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all mankind by a multiracial Manchukuo cooperates each other to realize Paradise and 'Peace of The great powers',

Korean's policy of mass emigration had been progressing on the basis of consonance. The pre-task of that was Safe Farm Village which was installed at Manchuria immediately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September 18th Incident).

The consonance committee installed The Safe Farm Village in order that this place would safely house refugees to set a ease The Manchuria Korean Community and expand a paddy field. However settled Korean farmers lead a hard life unlike propaganda which had the contents that settled Korean farmers were the beneficiary(?) of Manturia emigrant policy. Naturally, It was different depend on religion, but The early life was severe to save their life even in The Safe Farm Village.

Second, Japan established the plan so called to cultivate the vast

wasteland in Manchuria, but the plan was frustrated in their design.

As an alternative of the previous plan, it began to carry forward another policy to settle a mass of Southern Koreans those were good at paddy farming as immigrants by force. Manchukuo settled massive number of Korean immigrants to Manchuria

Despite of many side effects during the plan, Manchukuo had been encouraged Korean people to settle in Manchuria, presenting "the paradise" as a slogan.

And the people lived in Chungcheongbuk-do were not free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licy too. Many of Chungcheongbuk-do towns were founded in North-Gando and Kirin, and most of them are still exist today, like zheng yan chun Manchukuo insisted this mass immigration of Korean was done spontaneously, but it was done by force, at the risk of Korean people's lives.

Third, constructing shelters for the immigrants settled in the wasteland of Manchuria was the most vital issue for them. Most of them settled in caves as shelters in early days, and they spontaneously began to build up their own houses. The menace to immigrants those had built their own towns in the wasteland even beyond the people's contact was not only wild beasts but also the monster called "Forced-Procurement"

The migration policy of Manchukuo ha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Korean people to construct 'a beautiful farming settlement' The Koreans in those days had no choice but to live as a tenant farmers hired by the Manchu development company in the place so called "God-blessed natural farmland", where Manchukuo had promoted eagerly.

Keywords : Manturia Nation, mass emigration, Safe Farm Village, a paddy field farming method

